

이사비용 널뛰기



소비자는 울화통

광주지역 업체 평일-주말 50만원 이상 차이 웃돈 요구에 카드 결제시 수수료 떠넘기기도 무허가 업체 피해 등 배상보험 가입 확인해야

다음달 본격적인 이사철을 앞두고 소비자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권장 가격은 커녕, 이사 업체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인데다, 기준도 명확하지 않고 관련 정보조차 알 수 없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다음달 본격적인 이사철을 앞두고 소비자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권장 가격은 커녕, 이사 업체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인데다, 기준도 명확하지 않고 관련 정보조차 알 수 없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더 나아가 “이사품목에 포함돼 있지 않아 가격이 추가된다”는 등 애초 계약 내용에 명시돼 있지 않은 추가 운임을 반강제 식으로 요구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따르면 광주 지역 포장이사 관련 접수된 피해 상담 건수는 2012년 108건을 비롯, 2013년 102건, 지난해 100건 등 매년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부분 이사 비용 및 부당한 서비스 등에 대한 불만이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됐다. 구청 관계자도 “보험에 가입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과태료(50만원)이 부과되고, 일부 영업용이 아닌 일반차량과 무허가로 영업하는 곳도 있지만 일일이 단속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광주지법 해경 정장 재판 증인들 얘기 들어보니

“해경의 어떤 도움도 받지 못했다 잘못 인정안해 더 슬프게 만드나”

“구조 과정에서 (해경의) 어떤 도움도 받지 못했다”, “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슬픈 사람들을 더 슬프게 만드느냐” 27일 광주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임정영) 심리로 열린 전 목포해경 123정 정장 김경일 경위에 대한 재판은 해양경찰의 무능한 구조·수색 과정에 대한 생존자들의 원망을 들을 수 있는 자리였다.

오라든지, 바다로 뛰어들라든지, 퇴선을 유도한 해경이 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없다”고 한목소리로 답했다. 해경의 어떤 도움도 받지 못했고 123정이 구조를 위해 현장에 도착한 사실조차 몰랐다고 했다.



광주스마일센터 둘러보는 법무장관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27일 오후 광주시 동구 수기동 광주스마일센터를 방문,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스마일센터는 법무부가 위탁 운영하는 강력범죄 피해자 심리지원 전문기관으로 심리치료, 임시거주지 등을 제공하고 있다.

아동학대 경찰 현장조사 거부 땐 1년이하 징역

경찰청, 법 개정 추진

앞으로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현장조사를 거부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아동학대 신고자는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를 받게 된다.

경찰청은 법무부와 협의해 이 같은 방향으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특례법)과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이하 범죄신고자 보호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아동학대 교사 무관용 원칙 적용...엄중 처벌할 것”

광주 방문 황교안 장관 밝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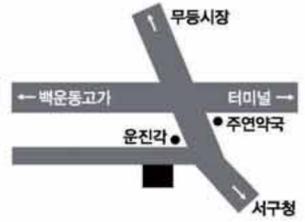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27일 “앞으로 어린이집·유치원 아동학대 가해 교사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관계장관 회의에서도 이 같은 논의가 이뤄졌는데, 구속수사 원칙 문제에 대해선 임법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면 만큼 검토하겠다”면서 “보육시설 내 CCTV 설치와 (학부모 자료 요청시) CCTV 화면공개를 의무화하는 문제 역시 마찬가지로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학대 가해자는 물론 가해자의 상급자 과실 여부도 대해서도 형사처벌을 원칙적으로 조사해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월산동 지하 1층 지상 4층 상가주택 “급매” 합니다 희망가격 제시 하십시오 가능한 매매 하겠습니다

-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 973-11, 19번지 (월산동 운진각 4거리 운진각 모텔 뒷편)
- 대지 128평 건물 208평
지하 - 51평, 상가
1층 - 41평, 상가
2층 - 46평, 사무실
3층 - 35평, 주택(방3 화2 거1 입식)
4층 - 35평, 주택(방3 화2 거1 입식)
- 시세 및 감정가 7억 5천만원
- 매매가 6억 5천만원 (용 3억8천만원 포함, 보 1억에 월 350만 가능)
- 엘리베이터, 주차장, 텃밭, 도시가스, 전체 울 수리
- 주인 직매 H. 010-3605-5000

청와대 폭파 협박 전화 국회의장 전 보좌관 아들 아버지 설득으로귀국

프랑스에서 전화를 걸어 청와대를 폭파 시키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강모(22) 씨가 27일 오후 3시 50분께 대한항공 KE 902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PC 쟁건 벌거 남편 목 조른 부인

“이혼 속려기간 중 집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를 쟁겨가려한 남편과 말다툼 끝에 목을 조른 30대 여성이 경찰서행.”